

**영국 BA - 미국 AA  
전략적 제휴**

유럽 최대 항공사인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BA)과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즈(AA)은 11일 전략적 제휴관계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드 셰어링」을 통한 공동운항과 노선공유로 브리티시 항공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내 노선을, 아메리칸항공은 브리티시 항공의 국제 장거리 노선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심을 모았던 양사간 주식 공유방식은 이번 제휴범위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양사는 현재 영국과 미국을 잇는 대서양 노선중 60%와 뉴욕-런던 노선의 70%를 점하고 있고 세계 항공시장 점유율이 10%대에 육박, 이번 제휴로 세계항공업계의 판도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항공 전문 컨설팅업체인 SH&E에 따르면 지난해 AA와 BA의 세계 항공시장 점유율은 11.3%에 달했으며 특히 미국 동부해안도시 및 캐나다와 유럽을 잇는 노선에 대한 점유율은 2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BA가 AA 노선을 공동 이용할게될 경우 유럽·아프리카·중동·아시아는 물론 AA의 주요 거점인 라틴아메리카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AA도 BA와의 제휴로 대서양 횡단 노선 확대를 노리고 있다

아메리칸항공은 이미 싱가포르 에어라인과 브리티시항공이 25%의 지분을 소유하고있는 호주 콰타스 에어라인과도 제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사의 제휴에는 몇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미국과 영국 정부간에 항공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폭넓은「오픈 스카이」개념에 입각, 영국 정부에 미국 항공사들의 운항을 최대한 자유롭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은 완전한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양국의 항공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BA와 AA간의 제휴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영국과 「오픈 스카이」협상이 결렬되면 BA와 AA의 제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쟁 업체들도 양사의 제휴는 「오픈 스카이」협상의 체결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델타항공은 유럽시장에 대한 미국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오픈 스카이」협상이 타결돼야 양사의 제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 페더럴 익스프레스사는 이원권 등을 포함한 완전한 항공자유화가 배제된 상태에서 AA와 BA와 같은 거대 항공사간의 제휴는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논평했다. 더나가 영국 버진 애틀랜틱항공

은 양사의 제휴가 독점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국 정부에 제휴 승인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北, 영공 개방할듯...  
빠르면 내년중**

북한이 빠르면 다음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입, 앞으로 6개월 안에 북한 영공을 지나는 상업 항공노선들이 개설될 가능성이 크다고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AWSJ)이 IAT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 신문은 싱가포르 상주 IATA 지역기술위원회 토니 라벤의 말을 인용, 현재 IATA 대표단이 평양에서 북한의 IATA 가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토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IATA 가입신청은 빠르면 다음달 안으로 받아들여질 예정이며 이미 미국의 델타등 일부 항공사들은 북한에 영공통과 허용을 신청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94년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영공개방을 통보하였으나 북한 영공통과시 항공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북한의 자금부족으로 마련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이 IATA에 가입하면 외국 상업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을 IATA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으며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항공 인프라 구

축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북한 영공이 개방되면 하루에 50-60대의 항공기가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카고~홍콩 노선은 90분, 베이징~도쿄노선은 30분씩 단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 영공개방으로 외국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고려항공의 낙후된 민간항공기의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에어 프랑스사, 파트너 물색중

브리티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이 전격적으로 동맹을 맺자 프랑스 국영항공사인 에어 프랑스의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내년부터 시작될 유럽항공여행 자유화를 앞두고 미국시장을 공략, 적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유수의 항공사와 제휴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뉘퉁수를 맞은 것이다. 에어 프랑스는 유럽 제일의 항공사인 브리티시항공에 비해 구조조정도 늦었고 꾸물거리다 제휴파트너도 놓쳐버린 것이다.

특히 '내년말까지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에어 프랑스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항공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 프랑스의 마음은 편치 않다.

항공전문가들은 '에어 프랑스가 택할 미국 파트너 항공사는 컨티넨털 정도가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다른 주요 미국 항공사들이 유럽 항공사들과 이미 짝을 맺어버린데다 에어 프랑스와의 제휴에 적극적인 미국 항공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제일의 항공사인 유나이티드는 루프트한자(독일) 등 2개사와, 델타항공은 스위스 에어를 비롯한 4개 유럽항공사와 각각 제휴관계에 들어가 있다.

현재 에어 프랑스는 일본항공(JAL)과 파리~도쿄노선에 한해 제휴하고 있을 뿐이다. 「드골공항이 런던 히드로공항보다 못할 게 뭐냐」고 콧대를 세웠던 에어 프랑스가 유럽행 손님들을 얼마나 끌어모을지 모르지만 경쟁시장의 논리는 냉엄하기만 하다.

### 대한항공, 보잉 B777-스트레치기 4대 구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사의 B777기 최신 시리즈이자 21세기 차세대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는 B777-스트레치기 4대를 총 5억6천만달러에 구매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사장이 이날 파리 에어쇼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 근교 브르르제 공항에서 보잉사의 론 우다드사장과 B777-스트레치기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777-스트레치기는 전장이 63.73m인 B777기와 형태는 같으나 길이가 10m정도 더 길어 4백18명의

승객을 태우고 서울에서 하와이까지 논스톱으로 운항할 수 있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당 가격은 1억4천만달러이며 오는 '98년 하반기중 국내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 최신예기가 위성항행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의 항공기 소재보다 가벼운 알루미늄합금으로 제작돼 유사 기종보다 20% 이상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소개했다.

### 대만 두번째 국영 항공사 설립

최근 대만정부는 대만 에어웨이 인터내셔널(Thai Airways International)사에 이어 두번째 국영 항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만 경제장관 회의에서 몇몇 장관들은 20%까지 외국 항공사의 투자를 주장하였지만 15% 이하 투자에 단일 업체가 5%이상의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억천9백만달러의 불입자본으로 시작되는 이 계획은 최소한 3개업체의 대만 기업이 참여하며 40%이하의 지분을 갖게 될 것이다. 3번째 활주로는 2,000m길이의 건설될 전망이다.